제13강 기억, 순수과거, 현재들의 재현

(1교시)

◆과거의 종류와 현재
※학습목표: 나누어진 과거의 종류를 알아보고자.

▲프랑스어의 과거시제
-프랑스의 과거시제는 복합과거, 반과거, 단순과거다.
-복합과거는 영어의 현재완료, 반과거는 반복되었던 과거, 단순과거는 역사적 과거다.

▲복합과거
「먼저 과거가 두 현재 사이에 끼어 있다는 통념을 생각해보자. 과거는 그것이 한때 구가했던 현재와 그것이 과거이기 위해 거리를 둔 현재 사이에 끼어 있다. 과거는 사라진 현재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사라진 현재가 겨냥되는 요소다. 또한 특수성도 역시 이제 그 겨냥된 것 안에, 다시 말해서 복합과거 시제의 과거 안에 있다.」
-'한때 구가했던 현재'는 한때 현재였던 현재다. 그리고 '거리를 둔 현재'는 어제와 오늘에 거리를 두어야 하기에 쓰인 말이다.
-'사라진 현재가 겨냥되는'은 사라진 현재가 발견되기에 그렇다. 즉 과거는 사라진 현재가 발견되는 곳이다.
-특수성은 유한성과 통한다. 일정한 범위에서 수축이 발생한다. 그래서 유한하고, 유한한 수축이 과거와 미래를 그것에 또 다른 차원으로 가짐으로써 좀 더 일반성이 확대된다.
-'겨냥된 것 안'은 과거의 특수성도 과거에서 확인된다는 의미다.
-과거 속에서 지나간 현재를 확인하는 것이 복합과거다.

▲반과거
「반면 과거 자체, 곧 반과거 시제의 과거는 본성상 일반적이다. 과거 일반은 그 안에서 각각의 사라진 현재를 특별하게 그리고 특수한 것으로서 겨냥하는 요소다.」
-들뢰즈의 의도는 현재와 관계하에 지나가면서 회상되는 것은 복합과거, 그 전체의 밑에 출렁이는 것은 반과거라는 것이다.
-과거 일반은 사라진 여러 현재들을 어떤 특수한 경우로써 확인하게 된다.

▲현재, 습관의 파지, 과거
*「훗설의 용어 사용법에 따라 우리는 **파지와 재생**을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습관의 파지라고 불렀던 것은 특정한 지속의 어떤 현행적 현재 안에서 수축되어 있는 계속적 수난들의 상태였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습관의 파지라고 불렀던 것은 특정한 지속의 어떤 현행적 현재 안에서 수축되어 있는 계속적 수난들의 상태였다. 그 순간의 특수성을, 다시 말해서 본성상 현행적 현재에 속하는 어떤 무매개적이고 직접적인 과거를 형성하고 있었다. 현재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기대를 통해 미래로 열려 있으며 일반적인 것을 구성하고 있었다.」*
-파지는 현재가 수축하면서 과거로 들어가는 것이다. 재생은 그 과거를 되살리는 것이다.

www.artnstudy.com

그래서 파지는 특수한 과거라면, 재생은 과거 일반을 말한다.
-무매개적이고 직접적인 과거는 복합과거다.
-우리의 의식은 항상 미래를 향한다. 기대를 통해서 미래로 기울어지고 그 미래로 열려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 내에서의 특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반성을 형성해 간다.

▲현재의 재생
*「반면 기억의 재생 쪽에서 보면 일반성을 띠게 된 것은 오히려 과거이고, 특수성을 띠게 된 것은 현재다. 과거 일반이 그 안에서 각각의 사라진 현재를 겨냥할 수 있는 요소인 한에서, 그리고 사라진 현재가 과거 일반 안에 보존되어 있다면, 사라진 현재는 현행적 현재 안에 **'재현재화'**되어 있다.」*
-'보존되어 있다면'은 '있다 해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지나간 현재가 재생을 겪지 않고 그냥 과거 안에 담겨만 있다면, 없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의미가 없다.
-과거 안에서 지나간 현재가 확인된다. 지나간 현재가 과거지만, 지나간 현재로서의 과거는 현재와 같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현재화다.

▲재현과 현재의 관계
「이런 재현이나 재생의 한계들은 실제로 유사성과 인접성의 가변적 관계들에 의해 규정되고 이 관계들은 연상이란 이름 아래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라진 현재들은 서로 인접해 있고 극단의 경우에는 현행적 현재와 인접해 있다.」
-현재를 재현재화 하는 것은 유사성이나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 있다. 우리는 과거를 떠올리는 경우 상당히 많이 현재와 함께 떠올린다.
-사라진 현재와 현행적 현재는 사실상 같이 있다. 그래서 과거는 수직으로 쌓인다.

◆현행적 현재의 재현
「연상주의의 위대성은 인공적 기호들에 대한 이론을 전적으로 이런 연상의 관계들 위에 정초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라진 현재가 현행적 현재 안에 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적 현재 자체가 이런 재현 안에서 다시 재현되어야 한다.」

www.artnstudy.com

(2교시)

◆순수과거
※학습목표: '현재와 순수과거', '시간과 현재'에 대해 살펴보자.

▲두 현재의 관계
*「재현은 본질적으로 단지 어떤 것을 재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재현은 또한 그 자신의 고유한 **재현능력**을 재현한다. 따라서 사라진 현재와 현행적 현재는 시간의 일직선 위에서 계속 이어지는 두 순간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적 현재는 필연적으로 또 하나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 새로운 차원을 통해 현행적 현재는 사라진 현재를 재현하고 또 그 차원 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재현하고 있다.」*
-자기가 다른 것을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재현능력도 계속 재현해야 한다.
-사라진 현재를 재현하지만 또 자기 자신의 재현능력도 재현되어야 한다.

▲회상과 반조
「현행적 현재는 회상의 미래적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현행적 현재는 오히려 사라진 현재의 회상을 형성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반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능동적 종합은 결코 대칭적이지는 않지만 서로 상관적인 두 측면을 지닌다. 재생과 반조, 재기억과 재인, 기억과 지성 등이 그것이다.」
-회상의 미래적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건 수평으로 늘어선다는 것이다.
-반조는 스스로를 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생은 사라진 과거를 불러 오는 것이다.
-지성을 쓴 이유는 현재가 자기 자신의 재현능력을 갖고 있을 때만 그것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현의 원리
「종종 주목되어왔던 것처럼, 반조는 재생 이상의 어떤 것을 함축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현재가 사라진 현재를 재현하는 동시에 현행적 현재로서 자기 자신을 반조하는 바로 이 보충적 차원에 불과하다. 의식의 상태 전체는 회상할 때 함축되는 차원 이상의 어떤 차원을 요구한다. 그래서 사라진 현재의 재생과 현행적 현재의 반조라는 이중적 측면을 생각할 때, 기억의 능동적 종합은 재현의 원리라 불리 수 있다.」
-반조는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를 떠올리는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 것은 과거를 불러옴과 더불어 자기 스스로의 재생능력을 재생하는 것이다.
-재현의 원리는 기억의 능동적 종합이다.

▲시간 쌓기
「이런 기억의 능동적 종합은 습관의 수동적 종합 위에 정초하고 있다. 왜냐면 습관의 수동적 종합은 가능한 모든 현재 일반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종합은 그 심층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즉 이제 항구적으로 증가하고 무한하게 증식해가는 차원들 안에 비대칭이 자리 잡게 된다. 습관의 수동적 종합은 현재라는 조건 아래 순간들의 수축을 통해 시간을 구성했다. 하지만 기억의 능동적 종합은 현재들 자체를 서로 끼워 맞추(쌓아 놓는)는 방식으로 시간을 구성한다.」

www.artnstudy.com

-'항구적~차원들'은 미fork 현재로 흘러들어오고 현재가 과거에 쌓이는 것이다.

▲과거일반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라진 현재가 재생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현행적 현재가 자신을 반조하는 것은 과거의 순수 요소에 의해서다. 이 과거는 과거일반, 또는 ***선험적a priori(초월적transcendental) 과거****에 해당한다. 과거는 현재나 재현으로부터 파생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재현에 의해 전제되고 있다.」*

-여기서 과거는 현재와 관계하에서의 과거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으로서의 과거다.

-들뢰즈에게 subsist한 것은 보편자가 아니라 잠재성이다.

▲기억의 이중성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기억의 능동적 종합이 습관의 수동적 종합 위에 정초하고 있다 해도 오로지 또 다른 수동적 종합, 곧 기억 자체의 고유한 수동적 종합에 의해서만 근거지어질 수 있다. 습관의 수동적 종합은 시간 안에서 살아있는 현재를 구성하고 과거와 미래를 그 현재의 비대칭적인 두 요소로 만든다. 반면 기억의 수동적 종합은 시간 안에서 순수 과거를 구성하고 사라진 현재와 현행적 현재를(따라서 재생 안의 현재와 반조 안의 미래를) 그런 본래적 과거의 비대칭적인 두 요소로 만든다. 하지만 순수하고 선험적인 과거, 과거일반 혹은 본래적 과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질과 기억」이 위대한 저서라면, 이는 아마 베르그송이 순수 과거를 형성하는 이런 초월적 종합의 영역을 깊이 통찰하고 이로부터 그 종합을 구성하는 모든 역설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에 대해서 기능하는 능동성을 얘기하는 반면,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의미의 수동적 종합을 사유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수동적 종합이다.

-순수과거가 베르그송이 생각하는 기억, 생명이다.

-현재와 함께 순환하면서 작동하는 이 과거는 현재에 비해서 능동적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체의 지평, 잠재성의 레벨에서의 순수과거를 구분해야 한다.

-순환하면서 작동하는 과거는 상식적으로 안다. 그러나 순환하면서 작동하는 과거는 상식적이다. 순수과거가 바탕이 되어야만 현재와 작동하는 능동적 과거가 가능하다.

www.artnstudy.com